#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전승의미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 Meaning of Gang, Gam-Chan's narratives in Gurye area

> 하 서 희\* Han. Seo-hui

목 차 -

Ⅰ. 머리말

Ⅱ. 전승현황

Ⅲ.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

IV. 맺음말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 and meaning of tradition of Gang, Gam-Chan's narratives handed down in Gurye area.

Gurye's Gang, Gam-Chan's narratives were all 10. This can be regarded as a feature of the tradition of Gang, Gam-Chan's narratives handed down in Gurve.

Gang, Gam-Chan's narratives who is handed down in Gurye province is different from the Gang, Gam-Chan's narratives who is handed down throughout the country. Gurye's Gang, Gam-Chan's narratives is very active with a specific motif called 'Water-noise Calm down'. This is a phenomenon that is linked to the evidence that the story of this area is the 'Village of JanSoo', and based on this, it creates a new type of story called 'Gang, Gam-Chan and JanSoo'.

<sup>\*</sup> 목포대학교 강사

Secondly, Gurye area are handed down to the story of 'Wonhyo monk and JanSoo', which is similar to the story of 'Gang, Gam—Chan and JanSoo'. These two narratives are influenced by each other at the same time in the background of the village of the old village of Gurye.

Lastly, the meanings of Gang, Gam—Chan's narratives in Gurye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three motifs, namely, 'Mosquito Eradication', 'Water—noise Calm down', and 'Break a Lightning'. Mosquitoes, Water—noise, and Lightning are all interpreted as symbolic expressions of local indigenous forces or local officials who dominate the ruling class. And through the character of Gang, Gam—Chan who is fighting them out in the story, it can be seen that the folk tales of the fable are desiring the emergence of a hero to save them from the real hardships.

Based on Gurye, Gam-Chan's narratives have dynamic talent by creating stories of their own type called 'Gang, Gam-Chan and JanSoo' in combination with the values of the folk tales' group as well as their regional specialties.

Key words: Gang, Gam-Chan's narratives, Village of JanSoo, Gurye area, 'Mosquito Eradication', 'Water-noise Calm down', Break a Lightning

# I. 머리말

고려 전기의 문신 강감찬(948~1031)은 현종9년(1018)에 고려를 침공한 거란의 10만 대군을 귀주(龜州)에서 격파한 명장으로,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대내외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풍전등화의 위기로부터 고려를 구한 강감찬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조에 이르러서도여러 문인들이 그의 출생과 활약담을 문헌에 기록하여 전할 정도로 지배층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문헌기록이 지배층의 강감찬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면, 피지배층의 강감찬에 대한 인식은 구비 전승되는 강감찬에 관한 설화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강감찬과 관련한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광포설화다.1) 때문에 강감찬 설화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간 강감찬 설화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경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즉 전국에 전승되고 있는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강감찬 설화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자한 연구²)와, 출생담과 성장담 등 강감찬 설화 중 어느 한 시기를 배경으로 이야기된 자료나 이물교구(異物交媾)와 같은 특정 화소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한 연구³), 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의미

<sup>1)</sup> 이하 '강감찬 설화'로 통칭한다.

<sup>2)</sup> 이경우(1983), 「인물설화의 의미와 변이 연구」, 『서원대학 논문집』 12, 서원대학교, 9~24쪽. 장장식(1990), 「강감찬 전설 연구」, 『석천정우상박사 화갑논문집』, 교학사, 580~582쪽. 강진옥(1990),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대 한국 문학연구소, 173~203쪽.

손병국(1997), 「명장과 이인으로 추앙받는 삶: 강감찬 설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3~47쪽.

권은정(2001), 「강감찬 전설의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2002), 「강감찬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sup>3)</sup> 강진옥(1990), 같은 논문, 173~203쪽.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성장담 연구」, 『한국언어문화』 48집, 한국언어문

분석에 대한 연구4)다. 이 중 장장식5)은 설화에서 강감찬은 영웅적 행위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신성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인물형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에게서 우호적인 시각을 받으며 전승될 수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물설화가 비교적 전승력이 강하고 전승내용도 풍부하다고 보았다. 장장식의 이러한 견해는 피지배층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설화의 전승력에 지배층의 인식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설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관련 인물의 문헌기록의 검토 역시 필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감찬 설화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지역의 전승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특히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에 대한 연구는 단연 압도적인데, 이는 강원지역에서의 전승이 타 지역보다 활발하기에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자료만으로도 강감찬 설화가 지닌 특징과 전승의미를 파악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원 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먼저, 서순 남6)은 강원도 지역 설화에 나타나는 주요 인물로 강감찬과 이이, 정철, 단군을들고 이들 설화의 유형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감찬은 전설에서

화학회, 229~255쪽.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출생담의 양상과 의미」, 『실천민속학연구』20, 실천 민속학회, 163~192쪽.

이동철(2013), 「강감찬 이물신랑 퇴치설화의 특징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52집, 한국언 어문화학회, 359~379쪽.

<sup>4)</sup> 서순남(1997),「강원도 지역의 인물전설 연구」, 전북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정룡(2003),「강원지역 강감찬 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권17, 강원민속학회, 145~164쪽. 최 웅(2009),「강감찬 설화의 의미 분석」, 『인문과학연구』 권2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9~187쪽.

김정남(2015), 「강원 지역 역사인물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장장식(1990), 앞의 논문.

<sup>6)</sup> 서순남(1997), 같은 논문.

책략과 초인적인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특히 강원지역의 특 정 지역과 관련하여 강감찬이 거론되는 것은 강감찬과 같은 신이한 능력을 가 진 인물이 나타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열망한 민중적 표현이라고 하 였다. 장정룡7)은 강원지역의 강감차 설화를 지역·출생·외모·퇴치와 이적 등의 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강원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 는 정사(正史)의 명장(名將)이라는 면모보다 민중생활상 불편함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최웅8)은 강워 영동지역에 전승되는 강감 찬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실존 역사인물이 설화화 되는 과정에서 민중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폈다. 그 결과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가 지역 전승 이 될 때는 특정지역 전승집단의 형편에 맞게 각색되고 재창조되어 전승되며, 강감찬이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대상들을 퇴치하는 이인적 면모를 통해 민중들의 현실적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남9)은 강원지역 역사인물설화의 전반적인 전승현황과 전승양상을 살피면서, 강감찬 설화는 강 원지역에 전승되는 목민관 설화로 대표된다고 하고 강감찬 설화를 통해 백성 들은 궁극적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강감찬과 같은 목 민관이 나타나 선정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표출로 보았다.

이처럼 강원 지역에 전승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록 지역적 연구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전승되는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강감찬 설화가 광포설화로서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설화의 내용이 대체로 비범한 출생과 신이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물(異物)퇴치등이 주를 이루면서 전승되고 있기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강감찬 설화가 지닌 특징과 의미를 도출해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sup>7)</sup> 장정룡(2003), 앞의 논문.

<sup>8)</sup> 최 웅(2009), 앞의 논문.

<sup>9)</sup> 김정남(2015), 앞의 논문.

보인다.

강감찬 설화와 같은 인물전설은 어떤 인물이 어떤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면서 살아간 이야기이므로 사회적 환경과 부딪히는 관계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또는 세계의 우위에 입각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나타내는 양상이 다른 전설의 경우보다도 구체적일 수 있다.10) 설화 속에서 강감찬은 세계와 대결하지만세계의 우위에 입각하여 행동하는데, 그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강감찬의 신이한 능력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적 인물로서 강감찬이 어떤 이유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변이되어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로, 대개 설화 전승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강감찬과 같은 능력자가 와서 해결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역사인물전설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전승될 때 그 속에는 해당 지역민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강원도와 같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인물전설의 지역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례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례를 포함하여 전남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은 전국 전승과비교할 때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볼 때 91편의 강감찬 설화 중 전남지역에는 12편의 자료만이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할 수 있었던 데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비해 전남지역에 전승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지역전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전남지역에서 전승되는 12편의 자료 중 10편이 구례지역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남지역에서 특히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고

<sup>10)</sup> 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6~7쪽.

있는 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본 설화가 갖는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Ⅱ. 전승현황

강감찬 설화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설화 외에도 다수의 문헌에 구비설화와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강감찬 설화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전 시대의 문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감찬에 관한 기록은 최자의 『보한집』을 필두로 하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용재총화』,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운부군옥』, 『해동이적』, 『해동명승전』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보한집』과 『용재총화』에는 강감찬의 출생담과 이적담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강감찬의 출생을 포함한 생애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보한집』과 『용재총화』의 기록은 현재 구비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구비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는 크게 강감찬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와 신이한 능력으로 동물은 물론 귀신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 그리고 강감찬의 못생긴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 전승되고 있다.

강감찬 설화가 문헌기록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승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강감찬의 출생담을 수록한 문헌 중 가장 먼저 보이는 『보한집』과 강감찬의 신이한 능력을 담은 『용재총화』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보한집(補閑集)의 기록>

오늘날 세상에 전해오기를,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으로 들어서는데 큰 별이 어

#### 74 호남문화연구 제63집

떤 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신은 이상히 여겨 곧 관리를 보내어 그 집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 집에서는 마침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사신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으니 그 아이가 곧 강감찬이며 후에 정승까지 지냈다. 송나라 사신 중에 뛰어난 식별력이 있는 어떤 이가 강공을 보고 "문곡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 되어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의 강공이 바로 문곡성이시군요."하고는 곧 뜰 아래로 내려가 예를 차렸다고 한다.110

### <용재총화(慵齋叢話)의 기록>

고려 시중(侍中) 강감찬(姜邯贊)이 한양 판관이 되었는데, 그때에 부의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이 많이 물려 부윤(府尹)이 걱정을 하자, 강감찬이 부윤에게, "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3, 4일만 기다리면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하고는 종이에 글을 써서 첩(貼)을 만들고는 아전에게, "내일 새벽에 북동(北洞)에 가면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네가 불러서 데리고 오너라."고 부탁하였다. 아전이 그가 말한 곳에 가보았더니, 과연 남루한 옷에다 흰 베로 만든 두건을 쓴 늙은 중 한 사람이 새벽 서리를 무릅쓰고 바위 위에 있다가 부첩(府貼)을 보고 아전을 따라와서 판관에 배알하고는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강감찬이 중을 보고 꾸짖기를, "너는 비록 금수이지만 또한 영(靈)이 있는 물건인데, 어찌 이와 같이 사람을 해치는냐. 너에게 5일간을 약속할 터이니, 추한 무리를 인솔하여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굳센 화살로 모두 죽이겠다." 하니, 중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부윤이 크게 웃으며, "판관은 잘못 본 것이오, 중이 어찌 호랑이겠소," 하니, 강감찬이 늙은 중을 보고, "본 모양으로 화하라." 하니, 중이 크

<sup>11)</sup> 최자·유재영 역(1981), 『보한집』, 원광대 출판부, 38쪽.

<sup>『</sup>보한집』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이 『고려사』 열전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 과 같다.

<sup>&</sup>quot;어떤 사신(使臣)이 시흥군(始興郡)에 들어왔다가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더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다. 사신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여겨 그 아이를 앗아와서 양육하니 이가 곧 강감찬(姜邯贊)이었다고 한다. 뒤에 재상이 됨에 이르러 宋나라 사신이 그를 보고는 不覺中에 下拜하고 말하기를 '文曲星이 보이지 아니한 지가 오래더니 이제 여기 있도다.' 라고 하였다." (『역주고려사』열전 권94(1971). 동아대 고전연구실, 248쪽.)

게 소리를 지르고는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여 난간과 기둥으로 뛰어오르니, 그 소리가 수리 밖에까지 진동하였으며 부윤은 넋을 잃고 땅에 엎드렸다. 강감찬 이, "그만두어라." 하니, 호랑이는 전 모양으로 홱 돌아가서 공손히 절하고 물러갔 다. 이튿날 부윤이 이원(吏員)에게 동쪽 교외에 나가 살펴보라고 명하여 가서 살 펴보니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갔다. 이로부터 한양부에는 호랑이에게 당하는 걱정이 없어졌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은천(殷川)이며, 복시(覆試)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수상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몸집이 작고 귀도 조그만했다. 용모가 아주 크고 위엄스럽고 가난한 어떤 선비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관대(冠帶)를 단정히 하여 앞줄에서고, 강감찬은 헌옷을 입고 그 밑에 있었는데, 송나라의 사신이 가난한 선비를보고, "용모는 비록 크고 위엄이 있으나 귀에 성곽(城郭)이 없으니, 필연코 가난한선비다."하고, 강감찬을 보고는 두 팔을 벌이고 엎드려 절하며, "염정성(廉貞星)이 오랫동안 중국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제 동방(東方)에 있습니다."하였다.12)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기록>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산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며,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이한 계략이 많았다. 형체와 용모는 작고 못생겼으며, 옷은 때가 묻고 떨어져서 볼품은 보통사람에 지나지 않았으나, 얼굴빛을 엄정하여 하여 조정에서는 큰 일에 다달아 큰 계책을 결정하여 홀연히 국가의 기둥과 주추가 되었다.13)

『보한집』과『고려사』 열전, 그리고『용재총화』에 보이는 강감찬의 출생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 전승되는 강감찬의 출생담과 관련이 매우 깊다.『보한집』 과『고려사』 열전에 수록된 내용은 강감찬이 문곡성(文曲星)의 탄생이라는 송 나라 사신의 말을 수록한 것이며,『용재총화』에는 강감찬이 염정성(廉貞星)의

<sup>12)</sup> 성현,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편(1985),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62~63쪽.

<sup>13)</sup> 김종서 외『국역 고려사절요』 I, 민족문화추진회 편(1976), 민족문화추진위원 회, 209~210쪽.

화신이며, 한양에서 판관으로 재임시에 중으로 변한 호랑이를 퇴치한 이야기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문헌에 보이는 문곡성이나 염정성 모두 강감찬의 비범한 인물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설화에는 천문성(天文星)이나 문태성(文太星) 등의 말로 표현되고 있다. 문곡성이란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을 일컫는 도교식 이름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관의 운을 결정하는 신으로 여겨 숭상하였다. 또 천문성은 당사주를 보는데 쓰이는 12개의 별 중 하나로, 천문성을 타고 태어나면 용모가 단정하고 학문에 부지런하여 문권을 잡고 백성을 다스리며 만인이 우러러본다고 한다.14) 따라서 문헌과 구비설화에서 보이는 문곡성 등의 언술은 모두 문인이지만 명장으로 추앙받는 강감찬의비범함을 출생에서부터 드러내기 위한 서술로 이해된다.

강감찬의 출생담과 더불어 『용재총화』에 보이는 한양에 출몰하여 해를 입히던 호랑이를 퇴치한 이야기는 이후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으며, 구비설화에도 이와 흡사하거나 호랑이가 아닌 여우나 다른 동물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절요』의 기록은 명장 강감찬의 외모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헌에서 강감찬은 못생긴 외모를 지녔고, 청렴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비로 전승되고 있는데, 대개는 강감찬이 본래 빼어난 인물을 타고 났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마마(천연두)를 불러와 얼굴을 얽게 하여 못생긴 외모가 되었다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보한집』과 『고려사』 그리고 『용재총화』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가 전국에 전승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강감찬 설화는 모두 91편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설화집에 수록된 강감찬 설화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구례지역의 강감찬 설화는 모두 10편으로,

<sup>14)</sup> 김은주(2002), 앞의 논문, 16~17쪽.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까지 포함하면 구례지 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자료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기본 대상자료를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 로 한정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자료집에 수록된 설화를 활용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 10편의 자료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연번	지 역			제 	목	주요 화소	연도 <sup>15</sup> )	
1	구례군	문척면	죽연마을	강감찬 때문에 사라진		물소리 잠재우기,	2000	
				모기와 여	울소리	모기퇴치	2009	
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강감찬과	번개	벼락칼 부러뜨리기	2009	
3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강감찬과	벼락	벼락칼 부러뜨리기	2009	
4	그레그	광의면	○ 다크ો	남악사의	모기와	모기퇴치	2009	
4	丁네正	정취단	근정덕	강감찬		조기되지		
5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강감찬과	자수	물소리 잠재우기,	2009	
				6 位 位 年	전투	모기퇴치	2009	
6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강감찬과	잔수	물소리 잠재우기	2009	
7	그레그	기기대	0}-1-1	フトコトラ)の)	치트러	물소리 잠재우기,	2000	
1	干別让	간전면	강선덕	강감찬의	신중력	모기퇴치	2009	
-	7 -1) 0	ㅂ기기	동산마을	コトコトラ) ()	미배처 1	모기퇴치, 번개(벼락칼)	2000	
8	干別百	중시디		강감산의	미범암 I	부러뜨리기	2009	
						모기퇴치, 물소리		
9	구례읍	봉서리	동산마을	강감찬의	비범함 2	잠재우기, 번개(벼락칼)	2009	
						부러뜨리기		
10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이무기를	죽인 강감찬	이무기 퇴치	2009	

<sup>15)</sup>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 자료로 삼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자료는 현재 온라인상에 서 서비스 되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사이트(http://gubi.aks.ac.kr/web/default.asp) 를 통해 검색한 자료들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에는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이와 같이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전국적인 전승현황을 고려할 때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겨우 2편만이 조사 채록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구례지역에서 10편의 자료가 채록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강감찬 설화는 강감찬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여러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유형(類型, type)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승적인 이야기다. 따라서 이야기가 아무리 복잡하거나 단순하더라도 다른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전승되는 독립적인 이야기라면 이것은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화소는 이야기를 이루는 독립된 요소들이며,한 유형에는 하나 이상의 화소가 들어 있다.16) 때문에 구례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전승되는 유형의 이야기를 만드는 공통의 화소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에 등장하는 주요한화소들과 해당화소가 나타나는 설화의 전승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화소	세부 화소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구례
기이한 출생	여우소생, 문곡성의 현신과 낙성대	3	8	3		1	2	3	
못생긴 외모		1	2		3			1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 퇴치	4	4	1	1		2	1	
이물(동물) 퇴치	신랑으로 변한 여우(쥐, 귀신)퇴치	3	5	7	3	1	3	2	
	도깨비 퇴치			1					

사업과 2차 『한국구비문학대계』 증보사업의 기간 동안 조사 채록된 자료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sup>16)</sup> 장덕순 외(1989), 『구비문학개론』, 일조각, 52쪽.

주요 화소	세부 화소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구례
	뱀 퇴치	1							
	개구리 퇴치	1	1	1	1	1	1		
	독수리 퇴치			1					
	개미 퇴치	3				1			
	모기 퇴치					4			6
	이무기 퇴치								1
	칡넝쿨 방지					1			
해원(解寃)						1		3	
벼락칼 부러뜨리기		5	1	1	3	1	2	4	4
물소리 잠재우기									5
기타	산신제, 장인 골탕먹이기 등	2	3	4	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의 화소는 크게 6개의 화소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동물이나 이물을 퇴치하는 이야기는 각편(各篇)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각각의 독립된 화소로 취급해 세밀하게 분류하면 강감찬 설화의 화소는 6개보다 훨씬 많아진다. 그러나 퇴 치의 대상이 호랑이, 여우, 개구리, 모기 등등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 강감찬의 이인적 능력에 의해 퇴치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보아 '이물(동물) 퇴치'라는 하나의 화소로 묶어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강감찬 설화의 화소 중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는 화 소는 크게 강감찬의 '기이한 출생'과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와 여우를 퇴치하 는 '이물(동물) 퇴치' 그리고 '벼락칼 부러뜨리기'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는 출생담과 호랑이와 여우 퇴치담은 앞 서 살펴본 『보한집』과 『용재총화』에 수록된 호환 퇴치담을 근거로 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즉 구전 강감찬 설화 중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전승되는 유형의 이야기는 문헌기록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전승되고 있고, 문헌설화의 원형 또한 크게 변형되지 않은 채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례지역에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는 이의 전국화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구례지역의 주요 화소는 '이물(동물) 퇴치와 해원', '벼락칼 부러 뜨리기', '물소리 잠재우기' 등 크게 세 가지 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례지역만의 독특한 화소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 Ⅲ.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

설화의 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화소다. 화소가 달라지면 이야기의 유형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해당 유형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화소에 대한 이해는 곧 설화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기에, 본 장에서는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주요 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기로 한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대표적인 화소는 '벼락칼 부러뜨리기' '이물(동물) 퇴치' 그리고 '물소리 잠재우기'다. 이 중 전국 화소라고 할 수 있는 '벼락칼 부러뜨리기'를 제외한 '이물(동물) 퇴치' 화소의 하나인 '모기 퇴치'와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여타의 지역과는 다르게 구례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례지역 설화의 특징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화소적 특징을 토대로 하여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이해하기로 한다.

### 1. 전승상의 특징

① 토착 증거물과의 결합을 통한 안정적인 전승기반의 확보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 중에서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에서 유일하게 구례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화소다.

아 저기 구례 호남 아니 전라남선 쭉 타고 내려오며는 구례 구역이 있어요 잉! 구례 구역에서 구례를 들어갈라고 그러며는 섬진강교를 건너죠 잉. 거그가 보며 는 여울이거든, 고 밑에가, 물이 만헐(많을) 때는 시끄러워, 그러고 또 모기가 많 고. 그러고 인자 강감찬 장군이 어째 인자 거기 그 곳을 지나가게 됐다고 그러더 라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거그서 유숙을 하게 된디, 모기가 많고, 또 머이냐 물소 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인자 은연중에 한다는 허는 얘기가, "물소리가 잠잠했으면 좋것다." 그러고. "왠 놈의 모구가 이렇게 많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 니까. 대짜 물이. 여울에서 흘러갔던 물이 물소리가 잔잔허니 나고. 또 모기가 없 고, 그래서 거그를 잔수라 해요. 잔수!

역전 근방을 우리가 \*ㅇㅇ\*자 써서 기냥 찬수라 그런디. 물이 잔잔허니 내려간 다 그래서 잔수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 이 지역만이라도 구례역 들어오면서 거그 에 대한 강감찬 장수의 그런 이야기는 전해오고 있어.17)

이 설화는 구례의 동해마을에 모기가 없는 이유와 잔수마을 앞을 흐르는 강 물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를 강감찬의 신통력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물 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구례지역에서만 보이고 있지만, 하나의 단독 화소로 각 편을 형성하기보다는 위의 이야기와 같이 대개는 '모기 퇴치' 화소와 결합하여 각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설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들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소들 간의 결합이 용이하여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sup>17) &#</sup>x27;강감찬과 잔수'(『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지역: 광의면 지천리 지상마을, 조사일시: 2009 06 19)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화소와 관련된 마을은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과 구례읍 원방리 병방마을, 문척면 죽마리 동해마을의 세 곳으로, 이들 세 마을은 섬진강을 끼고 서로 이웃한 마을들이다. 신촌과 병방마을은 현재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두 마을 모두 과거부터 '잔수(房水)' 혹은 '찬수'마을로 불러왔으며, 병방마을은 섬진강 여울의 아래쪽에 있다 하여 따로 '아래잔수(下房)'라 불러왔다. 또 동해마을은 잔수마을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마을 안에 무문정(無蚊亭)이라는 정자가 있어 모기 없는 마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8) 따라서 이런 지리적 여건이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에서 '물소리 잠재우기'와 '모기 퇴치' 화소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화소의 결합은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특징적 양상이 되어 주고 있다. 하지만 두 화소의 결합이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을 담보해주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전국 전승의 자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통의 화소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과 관련된 화소로 이루어진 이야기가해당 지역에서의 전승에는 훨씬 유리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구례지역뿐만아니라 충북지역에서도 발견되는 '모기 퇴치' 화소보다는 구례지역의 고유한화소인 '물소리 잠재우기'가 이 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켜주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가등장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잔수마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잔수마을'이 과거 구례지역의 교통의 요지였다는 역사성까지 더하고 보면 강감찬 설화가 특별히 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고 본다.

강감찬이 실제 역사 속에서 구례에 들러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수는 없다. 다만 고려 현종이 거란 침입시에 당시 예부시랑이었던 강감찬의 권유로 잠시 전라도 나주 땅으로 몽진했다는 19) 『고려사』의 기록을 참조해 볼 때

<sup>18)</sup> 구례군지편찬위원회 편(2005). 『구례군지』하. 구례군지편찬위원회. 102쪽; 107쪽; 152쪽.

강감찬이 전라도 어느 곳 혹은 구체적으로 이곳 구례를 지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잔수마을에 설치된 잔수진(잔수津)이 과거에 섬진강 좌우를 연결하는 주요 나루 중의 하나<sup>20)</sup>여서 잔수마을이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잔수와 강감찬과의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례와 강감찬의 관련성은 가정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언중들은 강감찬과 구례와의 인연을 마치 진실인양 이야기한다. 여기서 설화언중들이 '강감찬과 잔수'설화를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잔수'라는 지명 때문이다. 전설에서 증거물은 전설의 진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는 거짓 노래는 참말'이라는 말과 같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이야기 중에서 그나마 전설이 믿을만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그 증거물 덕분이다. 그리고 전설의 증거물은 해당 이야기의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시켜 준다.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에서 유일하게 구례지역에서만 보이는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로 이루어진 '강감찬과 잔수'라는 유형의 이야기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데에는 바로 이 증거물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잔수'라는 마을이 전설의 증거물이 되어주기에 '강감찬과 잔수' 설화의 진실성을 더해주고 있고, '잔수'라는 마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구례지역에서 강감찬과 관련한 설화의 전승은 쉽사리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인물전설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승지역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한 경우에 이야기가 일시적으로는 전승이 되더라도 오래지 않아 그 전승이 단절되는 경

<sup>19) &</sup>quot;많은 신하가 왕께 항복하기를 권했으나 유독 강감찬이 이를 반대하여, "오늘의 사변을 발생시킨 죄는 강조에게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힘에 겨운 전쟁이니 마땅히 적의 예봉을 피하였다가 천천히 회복할 방도를 강구합시다." 하고는 왕을 남쪽으로 피난케 하였다. 왕은 한 때 나주까지 피난하였지만 항복하는 일이 없이 강화가 이루어져 현종2년 2월에 환도하였다." (『역주 고려사』 열전 권94(1971), 동아대 고전연구실, 220쪽.)

<sup>20)</sup> 이경엽 외 공저(2007), 『구례 잔수농악』, 구례잔수농악보존회, 민속원, 13~14쪽.

우가 많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감찬과 구례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이 지역에서 유독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지역의 토착 증거물과 결부되어 안정적인 전승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 ② 지역기반 인물전설과의 상호교섭을 통한 효율적인 전승

전설의 증거물은 이야기가 진실하다고 믿게 하고 후대로의 전승력을 확보해준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 역시 '잔수'라는 증거물과 관련되어 현재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구례지역에서 '잔수'라는 증거물과 관련된 인물전설이 강감찬 설화 외에 또 다른 인물전설이 전승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전에 원효대사가 있지, 원효대사 잉? 이 사람이 토지(토지면) 가면은 연곡사라고 있어. 연곡사. 고리 처음에 출가를 했어. -(중략) - 이 우리집 앞에 저그가 동해라고. 동녘 동자 바다 해자, 동해. 그 앞을 지나가는디 말하자믄 문제의 전설은 거그서 시작 돼.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거그를 즈그 어메이를 그때는 마을이 살마도 안 살고 그럴 때여. 수목만 있고. 저녁에 그 즈그 어머이를 뫼시구 잘라니까 모기가 한정 없이 대들어. 아이, 그 뭐 아이 암행이 으사 되뿌려, 원효가. "이 모기 없앨 수가 없느냐?" 어, 그러니까 이 살마이 뭐 술수를 - 도술을 써 가지고 모기를 없앴다. 이래서 모기가 없고. 모기를 없애놓고 잠 잘라고 보니까, 아 인자 여울 소리가 시끄러서 잠을 못자. "여울소리 땜에 나 잠 못 자겼다."구 그러니까 여 뭐 여울 소리를 죽였다. 그것이 유명해져뻐렸어. 인자. 유명해져뿌렀어요. 그래기 땜에 저, 저, 저 마을 앞에 가서 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디 그걸 보고 무식한 사람들이지 무문정(無蚊亭)이라 그래 놨어. 모기 문 - 모기 문(蚊)짜, 없을 무(無)짜. 모기가 없는 정자다 해서.21)

위 설화는 구례 연곡사에 출가한 원효대사가 자신을 찾아온 속가의 어머니 를 위해 모기를 없애고 여울소리를 죽였다는 이야기다. 강감찬이 원효대사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강감찬 설화와 동일하다. 구례의 '잔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 외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타의 설화 집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표를 통해 『한국구비문학대계』 자료를 제외하고 현재 '잔수'와 관련하여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 목	주요 인물	주요 화소	출처와 조사연도22)
잔수	원효대사	물소리 잠재우기	내고장 전통가꾸기 <sup>23)</sup> / 1981.
강감찬 장군과 잔수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sup>24)</sup> / 1992.
강감찬 장군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 1992.
원효대사와 연곡사	원효대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 1992.
잔수의 유래	연기조사	물소리 잠재우기	구례의 설화(중) <sup>25)</sup> , 2017
잔수마을 이야기	강감찬, 원효대사	물소리 잠재우기	구례의 설화(중), 2017
병방마을 유래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연기존자 어머니와 가재	연기존자	가재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모기 없는 마을	강감찬	모기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강감찬 장군 이야기	강감찬	물소리 잠재우기, 모기퇴치	구례의 설화(중), 2017
거머리를 없앤 강감찬 장군	강감찬	모기퇴치, 거머리 퇴치	구례의 설화(하), 2017

<sup>21) &#</sup>x27;원효대사와 연곡사' (조희웅·조흥욱·노영근(2010),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도서출 판 박이정. 203쪽.)

표에서 보듯이 구례의 잔수마을 설화와 관련된 인물로 강감찬 이외에 원효 대사와 연기존자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도에 발간된 구례군의 『내고장 전통가꾸기』에 수록된 잔수 관련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우리 고장 사성암에서 불도를 닦고 있을 때, -(중략) -그 후 어느날 밤 잠에서 깬 어머니가 "무슨 강물 소리가 이렇게 클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구나."하며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원효는 바로 즉시 섬진강 강변으로 달려가 두 눈을 감고 지금까지 닦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으로 외우고 나서다시 하늘을 우러러 "어머님의 잠자리를 편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내려주소서."하고 불공을 드렸더니 갑자기 시끄럽던 강물 소리는 한군데로 모여 하늘이 무너질 듯 그 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한다. 원효대사는 도신력을 이용하여 오산 밑으로 그 물소리를 가두어 버려 이때부터 섬진강 물은 잠자듯 고요해졌고 그 후부터이곳을 잔수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 근처의 마을도 잔수부락이라고 부르게 되고이곳 주민들은 원효의 정신을 본받아 지금도 효자 효녀가 많다.26)

두 편의 설화에서 공히 물소리와 모기를 없앤 원효대사가 활동하는 무대로 구례의 연곡사와 화엄사의 사성암이 설정되어 있다. 구례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인 화엄사를 비롯하여 연곡사와 천은사, 그리고 다수의 암자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에 설화 속에서 구례지역의 사찰이 배경이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연기존자는 화엄사 창건주로 알려져 있으

<sup>22)</sup> 출처문헌과 조사연도를 동시에 표기한 이유는 자료집에 따라 출판연도와 조사연도가 현 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 논문의 주요 참고자료집인 『구례 의 설화』의 경우 출판일은 2010년이지만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 수집일은 1992년 4월 25 일부터 28일로 차이가 난다.

<sup>23)</sup> 내고장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 편(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 구례군.

<sup>24)</sup> 조희웅·조흥욱·노영근(2010), 같은 책, 도서출판 박이정.

<sup>25)</sup> 구례문화원(2017), 『구례의 설화』 중, 구례문화원.

<sup>26)</sup> 내고장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 편(1981), 「잔수(潺水)」, 앞의 책, 165쪽.)

며, 원효대사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고 갖가지 기행을 일삼다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은 인물이다. 따라서 화엄사 창건주 연기존자와 갖은 기행으로 설화 속에 자주등장하는 원효대사가 구례지역 설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잔수 설화와 관련된 인물이 강감찬과 함께 원효대사와 연기존자로까지 넓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잔수 설화와 연관된 인물이 애초에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본 래 구비전승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이 설화이고 보면 자료의 조사연도를 따져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잔수의 인물로 원효대사와 연기존자 그리고 강감찬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러한 현상이 '잔수설화'를 후대로까지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설화의 주인공이 지역과 관련이 깊은 인물일 경우 해당 설화의 전승력은 매우 강하며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례와 인연이 깊은 원효대사나 연기존자와 잔수가 결합된 잔수설화의 전승력역시 강할 것이다. 이에 비해 역사적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강감찬과 잔수설화는 그것이 앞서 살펴본 '잔수마을'이라는 증거물과 결부되어 이야기되고 있을지라도 원효대사와 잔수설화에 비해 그 전승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감찬과 잔수 설화는 지금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병방마을 앞에는 말을 내리는 하마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 그 강감찬 장군이 인자 이쪽 구례에 왔다가 어 거기서 말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유숙을 했던 곳인데, 당시 계절이 여름인지라 아 날이 더워서 잠자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강물이 많이 불어가꼬 물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u>강</u>감찬 장군이 그 강을 향해서 물소리가 왜 이리 시끄럽냐라고 크게 호령을 한 뒤로는 그냥 강물소리가 잔잔해져 버렸대. (중략). 그래서 잔

### 수 또는 찬수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렀대.

여기 찬수마을은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통일신라 때 그 때 원효대사라고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 그 스님이 우리고장 저 오산에 있는 사성암 있지 그 사성암에서 불도를 닦고 있는데, 그 해 인자 어머니가 원효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팠대... (중략)... 잠자다가 깬 원효대사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기냥 강물소리 때문에 통내가 요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 어떤 도력으로 막불공을 오래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 도력으로 그 시끄러운 물소리를 끌어다가 그 사성암 옆에 그 절벽 있잖아. 그 절벽에다가 가둬버렸대~~ 물소리를. 그랬더니인자 그 뒤로 섬진강물이 아주 잠자듯이 이렇게 고요해졌고, 인자 조용히 물이 흐른다고 해서 그 후부터 인자 잔수라고 이 마을을 잔수라고 불렀대.27)

위 설화에서 보듯이 한 명의 화자가 '강감찬과 잔수' 설화와 '원효대사와 잔수' 설화를 하나의 이야기에서 동시에 구연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설화향유자들의 의식 속에는 '잔수' 이야기에 원효대사와 강감찬이 모두 동일한 무게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강감찬과 잔수' 그리고 '원효대사와 잔수'라는 두 유형의 설화가 서로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서의 '잔수'라는 토착적이고 고유한 증거물과의 결합과 함께 지역을 연고로 하는 인물설화와 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며 전승되는 것 역시 설화를 안정적으로 전승케 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현상 역시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주요한특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영웅적 인물의 출현에 대한 소망과 현실 극복의지

강감찬 설화는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구비설화 전반에 걸쳐 그의 이인적 면

<sup>27)</sup> 구례문화원(2017), 「잔수마을 이야기」, 앞의 책, 61~63쪽.

모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강감찬의 이인됨은 주로 신통력을 통해서인 데, 신통력은 동물이나 칡넝쿨과 같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 래하는 대상을 말로써 또는 부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퇴치하는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강감찬이 퇴치하는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동물 혹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를 퇴치하는 강감찬의 일화가 수록된 『용재총화』의 기록 역시 당시 백 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극심한 피해를 주는 대상에 대한 징 치를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불교가 국교였던 고 려시대에 존경의 대상이며 지배층이었던 중이 호랑이로 둔갑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언술은 결국 타락해가는 불교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강감찬에 의해 호랑이가 쫓겨났다는 것은 귀주대첩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해낸 강감찬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타락한 불교계를 징 치하고 그로 인해 곤궁에 처한 백성들의 삶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당대 민중의 소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에서 구례지역의 강감찬 설화에서 주로 퇴치되는 대상인 모기 역시 단순히 동물로서의 모기가 아니라 그 지역민들을 위해 퇴치되어야 마땅한 존재로 상징화된 것으로 읽어 야 할 것이다.

강감찬이라고 헌 양반이, 싯이 있었는디, 그이가 구례를 와갖고, 저 동해부락이 라고 있어요. 동해부락. 역전에서, 구례 역전에서 좌로 쭉 내려가믄. 저 강 건네 동해부락이라고 있는디. 거그서 자게 됐는디. 날이 저물어서 거그서 자게 됐는디. 아, 여름인디, 어쨌든가, 드러눠잔디, 어뜨게 모그가, 모기가 달라들고, 물어 뜯어 싸서 못 살, 못 자것거든. 근게, 그이가. 설소리를 허는 것이. "아, 이놈들아 사람 많은디 가서 좀 뜯, 뜯어 먹어라. 여, 동네도, 부락도 몇 호 되도 안 헌디. 쪼간헌 부락에 사람을 그렇게 못 젼디게 뜯어 묵냐." 아, 그런게로. 딱 모그가 그쳐블드래. 통 안 달라들어. 말 한마디 헌디.28)

강감찬이 구례의 동해마을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는 동안 모기 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강감찬이 말로써 모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렸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구례지역에는 강감찬이 모기를 쫓아낸 이야기가 타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이 전승된다. 강감찬이 모기를 없앤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보이는 6편의 자료 외에도 『구례의 설화』에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기라는 동물을 없앤 것은 『용재총화』에 보이는 호랑이를 없앤 것과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둘 다 당시 백성들을 괴롭히던 동물이고 징치와 퇴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호랑이가 나타나서 퇴치되는 지역을 보면 한양 즉 당대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인 반면에 모기는 구례라는 향촌에서 더군다나 동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퇴치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가 수록된 『용재총화』와 같은 문헌기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자층이 많은 중앙과 지역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수도 있지만, 호랑이와 모기, 개구리 등의 동물들이 주는 피해정도를 생각한다면 구례지역에서는 왜 호랑이가 아닌 모기로 표현되었는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호랑이는 중앙권력으로 상징되는 지배층에 의한 피해를, 개구리나 모기는 부패한 지방관원 내지는 토착세력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모기는 호랑이와 같이 직접적으로생명에 위협을 주는 동물은 아니다. 다만 날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몸에붙어 피를 빨아먹어 피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지방민들을 괴롭히는 못

<sup>28) 「</sup>강감찬의 비범함」(조사지역: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동산마을, 조사일시: 2009. 7. 3. 제보자: 정원창(남, 8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sup>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220\_SJ H JWC

\_0004&dbkind=2&hilight=강감찬의 비범함&navi=검색;강감찬의 비범함(제목))

된 지방관이나 토착세력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기를 없애는 강감찬의 모습을 통해 타락한 목민관과 토착세력에 대한 응징이나 지역민들의 사소한 민원까지도 해결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목민관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백성들은 중앙으로부터의 절대적이고 서슬퍼런 권력에 의한 횡포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신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괴롭히는 토 착적 폐해를 없애주는 것 또한 절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록에 보이는 강감찬의 행적 또한 평생을 고려와 백성들을 위해 살 아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에 임금은 물론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이르 기까지 강감찬을 존경했던 것이고. 이러한 강감찬의 인간됨은 힘들고 억울한 생활을 이어가던 민중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아와 같은 인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강감찬 설화에서 모기를 퇴치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 는 이야기로 강감찬에 의해 시끄러운 물소리가 조용해졌다는 것이다.

강감찬 장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강감찬, 강감찬 장군 허고 거, 소정방 장군 허고는. 저그, 저, 역전에 나가므는 구례읍이를 나가므는 신월마을이 있어요. 신월 마을이 있는다. 그 가므는, 그렇게 인자, 그 강물이, 그렇게 막, 그, 사납게 흘렀는 데. 그, 그, 강감찬 장군이 거시기 와갖고는 잔잔했다 해서 잔수라고 그래, 잔수. (조사자: 그래서 잔수다.) 예. 그렇게 해서 잔수. 거, 잔수라고도 허거든요. 잔수마 을이라고 그렇게. 그런게 다른 마을은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용방은 그렇게 피해를 안 봤어요.29)

<sup>29)</sup> 「강감찬과 잔수」(조사지역: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하용마을, 조사일시: 2009. 2. 10, 제보자: 김형렬(남, 49)),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sup>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210\_SJH\_KH L 0005&

dbkind=2&hilight=강감찬과 잔수&navi=검색; 강감찬과 잔수(제목))

설화 속에서 사람들은 강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내는 시 끄러운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기와 함께 시끄러운 물소리가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일까. 퇴치 대상으로서의 모기를 지방관료 또는 토착세력에 의 한 횡포로 볼 때, 시끄러운 물소리 역시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그 무엇일 것이 기에 강감찬에 의해 퇴치된다.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에서 퇴치되는 대상으로 모기와 함께 개구리가 자 주 등장한다. 개구리는 신화에서는 왕권을 상징하지만 설화에서는 부정적 의 미로 사용된다. 개구리는 수륙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존재로 간자(諫子)이며 물 속에서 숨어 지내는 첩자와 같은 존재로서 흉물스런 모습을 띠어 병란을 상징 하기도 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 영묘사(靈廟寺) 옥문지(玉門池) 개구리의 경우 성난 모습을 보고 적군을 퇴치한 예도 있다. 강감찬 설화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는 부정적 의미로 상징화하여 퇴치되는데, 울음소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퇴치대상이 된 것은 다시 말해 잘못된 여론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응징일 수 있다.30)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물소리 역시 시끄 러운 개구리 소리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목민관의 성정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여론 역시 모기로 상징되는 토착세력들의 횡포다. 잘못된 여론에 의한 지방관리들의 어리석은 판단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폐 해다. 구례지역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역사를 지녔을 것이다. 따라서 강 감찬 설화를 통해 피지배층들은 지방 토착세력의 횡포와 전횡으로부터 자신들 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현명한 목민관의 출현에 대한 염원을 피력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구례지역 설화에서 강감찬이 퇴치한 것은 모기와 시끄러운 물소리만이 아니다. 설화 속 강감찬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락칼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는

<sup>30)</sup> 장정룡(2003), 앞의 논문, 162쪽.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

강감찬이란 사람이 선생이 있었는다. 그 강감찬이란 사람이 하느님도 자기 멋대 로 허고 모든 걸 다 헌디. 어 그때 세상에는 어디 가다가 질 가상에다(길 가에다) 소변만 봐도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때리고 그래 부렀대. 근디 강감찬이란 사람이 허다 그걸 본께 너무다가 하늘에서 너무 심허게 해서. 한번은 강감찬이가 어쨌는 고는 하늘에서 벼락 내려온 거를 벼락칼을 뺏아 부렀어. 벼락칼을 뺏아 부러갖고 착 분질러갖고, 칼은 자기가 갖고 칼자루 속에 든 놈만 줬어. 칼자루 속에 든 놈을 준께 그놈을 갖고 올라가갔고, 다시 칼을 맨들어 갖고, 지금 사용을 험선(하면서) 어찌다가 어느 경우에 벼락을 때리지. 그런 벼락은 별로 없다 그거여, 지금은. 그 런 이야기를 들었어.31)

이야기 속에서 벼락칼은 본래 사람들이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 하늘에 서 징벌의 의미로 내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징치가 과해져서 사람들이 길 가에 소변만 봐도 벼락이 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자, 보다 못한 강감찬이 벼락칼을 징치한다. 여기서 벼락칼이 처음에는 백성 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는 사소한 실수에도 백성들 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력적 존재로 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면, 벼락칼 역 시 앞서의 모기나 시끄러운 물소리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무엇일 것이며 특히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절대권력에 의한 피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는 악행을 일삼는 벼락칼과

<sup>「</sup>강감찬과 번개」(조사지역: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냉천마을, 조사일시: 2009. 31) 01. 29, 제보자: 김광수(남, 80)),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sup>(</sup>http://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04\_FOT\_20090129\_SJ H\_KKS\_

<sup>0001&</sup>amp;dbkind=2&hilight=강감찬과 번개&navi=검색;강감찬과 번개(제목))

같은 절대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강감찬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강감찬은 벼락칼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부러뜨린 후 절반만 하늘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사람은 언제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치와 교화는 필요하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죄에 대한 응당의 처벌은 받되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화 향유층의 법과 권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투영인 것이다.

구례지역 설화 속에서 강감찬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퇴치하고, 평안한 잠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물소리를 잠재우며, 목숨을 위협하는 벼락칼을 부러뜨리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이야기를 통해 강감찬과 같은 애민사상을 지닌 지방관의 출현을 소망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고대하였던 민중의 소박한 의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허구의 세계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이야기와 같은 상상적 세계 속에서나 겨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출현을 소망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영웅적 인물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영웅적 인물담은 현실이 암담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전승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민중은 잠시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전설의 주인공은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결국에는 패배하고 만다. 하지만 강감찬의 경우 역사적 인물로서 전설의 주인공이지만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다. 전설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수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타당하기때문에 수긍될 수 있다. 32) 전설적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곧 전설의 전승의미다. 구례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에는 결국 지배층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적 인물의 출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

<sup>32)</sup> 조동일(1979), 앞의 책, 96쪽,

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설화 전승집단의 의지는 해당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현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강감찬 설화 중 전남의 구례지역에서 조사 수집된 자료는 모두 10편이다. 이는 전남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불과 2 편만이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특이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구례지역에서 강감찬 설화가 활발히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징과 전승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특징으로는 먼저, 현재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에서는 강감찬의 일화가 수록된 문헌기록과 전국 전승의 구비설화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강감찬의 출생담과 호랑이와 같은 이물퇴치 등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대신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소리 잠재우기' 등과 같은 특정 화소에 의한 이야기의 전승이 활발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광포설화인 강감찬 설화가 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될 때 해당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주요 화소인 '물소리 잠재우기' 화소는 지역의 토착마을인 '잔수마을'과 결합되어 구례라는 특정 지역에서 '강감찬과 잔수' 설화라는 유형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설화와 토착적 증거물과의 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설화의 전승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례지역에서 전승되는 강감찬 설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역을 연고로 한 인물설화와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구례지역에는 '강감찬과 잔수' 설화와 유사한 '원효대사와 잔수' 설화가 함께 전승되고 있다. 인물전설의 경우 해당 지역과의 역사적 관련성이 있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의 전승은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 구례

지역의 사성암과 관련이 깊은 원효대사 설화의 전승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감찬은 지역의 '잔수' 마을이라는 증거물과 결부 되어 전승되는 외에는 원효대사와는 달리 구례지역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 따 라서 '잔수' 마을이 사라지거나 마을명이 바뀔 경우 그 전승력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기에, 원효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례지역에서 의 강감찬 설화의 전승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원효대사 설화와의 동시 전승은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전승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례지역의 강감찬 설화가 지닌 전승의미는 구례지역에서의 주 요 화소인 '모기 퇴치'와 '물소리 잠재우기' 그리고 '벼락칼 부러뜨리기'라는 세 화소의 의미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기와 시끄러운 물소리, 벼락칼은 모두 당대 피지배층에게 횡포를 가하는 지방토착세력 내지는 지방관 리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강감찬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의 출현을 소망하는 전승집단의 의지가 강감찬 설화를 지 금까지 전승시켜온 의미라고 보았다.

역동적인 전승력을 가진 전설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재창조된 다.33)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광포설화를 지역설화로 재창 조하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설화 전승집단의 가치관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 여 '강감찬과 잔수'라는 나름의 고유한 유형의 이야기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전 승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sup>33)</sup> 표인주(2000). 『남도설화문학연구』. 민속원, 83쪽.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1971), 『역주 고려사』 열전 권94, 태학사.

김종서 외(1452), 『국역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편(1976), 민족문화추진위원 회.

성현(1525), 「용재총화」,민족문화추진회 편(1985), 『국역 대동야승 I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최자·유재영 역(1981), 『보한집』, 원광대 출판부.

구례군지편찬위원회 편(2005), 『구례군지』상·중·하, 구례군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 구례군(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 구례군.

조희웅·조흥욱·노영근(2010), 『호남구전자료집1-구례군』, 도서출판 박이정.

『한국구비문학대계』(1980~2017),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gubi.aks.ac.kr/web/default.asp)

### 2. 단행본 및 학술논문

강진옥(1990),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대한국문학연구소, 173~203쪽.

권은정(2001), 「강감찬 전설의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2002), 「강감찬 설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남(2015), 「강원 지역 역사인물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서순남(1997), 「강원도 지역의 인물전설 연구」, 전북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병국(1997), 「명장과 이인으로 추앙받는 삶: 강감찬 설화의 전승 양상과 의미」, 『인문사회과학논문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3~47쪽.

이경엽 외(2007), 『구례 잔수농악』, 구례잔수농악보존회, 민속원.

- 이경우(1983), 「인물설화의 의미와 변이 연구」, 『서원대학 논문집』 12, 서원대학교, 9~24쪽.
-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출생담의 양상과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20, 실천민속학회, 163~192쪽.

(UCI: http://uci.or.kr/G704-002060.2012.20..001)

- 이동철(2012), 「강감찬 설화에 구현된 성장담 연구」, 『한국언어문화』 48집, 한국언어문화』 48집, 한국언어문화의, 229~255쪽,(UCI: http://uci.or.kr/G704-001057,2012,.48,010)
- 이동철(2013), 「강감찬 이물신랑 퇴치설화의 특징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5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359~379쪽.

(UCI: http://uci.or.kr/G704-001057.2013..52.008)

장덕순 외(1989), 『구비문학개론』, 일조각.

장장식(1990), 「강감찬 전설 연구」, 『석천정우상박사 화갑논문집』, 교학사, 580~582쪽. 장정룡(2003), 「강원지역 강감찬 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권17, 강원민속학회, 145~164쪽.

- 조동일(197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최 웅(2009), 「강감찬 설화의 의미 분석」, 『인문과학연구』 권23, 강원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 159~187쪽.

(UCI: http://uci.or.kr/G704-SER000001626.2009..23.007) 표인주(2000). 『남도설화문학연구』, 민속원.

# 100 호남문화연구 제63집

투고일: 2018. 5. 15. 심사기간: 2018. 6. 3~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5.

# 구례지역 강감찬 설화의 특징과 전승의미

본고는 전남의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의 전승상의 특 징과 전승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총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한국구비문학대계』수록 자료를 기준으로, 구례지역을 제외한 전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자료가 불과 2편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매우 특징적 현상이다.

구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는 전국 전승의 강감찬 설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즉 전국 전승의 설화에서 주로 보이는 '호랑이와 여우 등의 이물퇴치' 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물소리 잠재우기'와 같은 특정 화소에 의한 설화의 전승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강감찬 설화가 지역의 토착 증거물인 '잔수마을'과 결합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강감찬 설화는 구례지역에서 토착의 증거물과 결합되어 '강감찬과 잔수'라는 새로운 유형의 설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전승력을 확보하여 전승되고 있다.

다음으로, 구례지역에는 '강감찬과 잔수' 설화와 유사한 내용의 '원효대사와 잔수'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 두 설화는 구례의 잔수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동시에 구전되면서 서로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물전설은 인연이 있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전승될 때 더욱 활발히 전승될 수 있다. 따라서 구례지역과 관련이 깊은 원효대사의 설화에 상대적으로 역사적 관련성이 약한 강감찬 설화가 함께 전승되는 현상은 해당 지역에서 강감찬 설화의 전승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강감찬 설화가 지닌 전승의미는 이 지역 중심 화소인 '모기 퇴치'와 '물소리 잠재우기' 그리고 '벼락칼 부러뜨리기' 라는 세 화소의 의미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모기와 시끄러운 물소리, 벼락칼은 모두 당대 피지배층에게 횡포를 가하는 지방토착세력이나 지방관리들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설화 속에서 이들을 퇴치하는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적 고난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의 출현을 소망하는 당대 전승집단의 의식이 설화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전국 전승의 광포설화를 지역의 고유한 설화로 재 창조하여 설화의 전승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감찬 설 화는 설화 전승집단의 가치관은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강감찬과 잔수'라 는 나름의 고유한 유형의 이야기를 창출하여 역동적인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제어: 강감찬 설화, 구례, 증거물, 잔수마을, 모기 퇴치, 물소리 잠재우기, 벼락칼 부러뜨리기